



제 81 호

경상북도 의회소식



council.gb.go.kr

열린의정구현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Gyeongsangbuk-do Council News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2014. 2. (제267회 임시회)



문경 철로자전거

제267회 임시회

2014년 첫 임시회, 도정 업무보고 받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 조례 등 현안사항 처리



제267회 임시회 제차 본회의에서 2014년 경북도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의회(의장 송필각)는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새해들어 처음 개최된 이번 임시회는 상임위원회별로 경북도 및 도교육청 각실구별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민생 관련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구체적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2월 6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김관용 경북도지사과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4년도 경북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 2월 6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집행부 각실구별 업무보고와 함께 각

종 민생 관련 안건을 심사했으며, 2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최종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의 주요안건으로는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광역 건축기본계획(안)의견 청취의 건 등이다. 🏠

의정
단신

의회사무처 직원, 설 장보기 전통시장으로 가요~



경상북도 의회사무처(처장 이태암)는 1월 21일 직원 60여 명이 민족고유의 설명절을 맞아 칠곡 왜관 시장을 방문하여 민생안정 및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및 설 명절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설맞이 장보기 행사에 참석한 직원들은 사전에 구입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구입하였으며, 또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왜관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이용 및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

Contents	차 례	지면안내
화보	문경 철로자전거	1면
의정소식 / 의정만평		2~4면
인물포커스 / 특별위원장 인터뷰	김영기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장, 나기보 지방분권특별위원장	5면
특별기고	정형진 안동대학교 총장 고등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신도청 시대를 대비하자	6면
상임위원회 활동	의회운영·기획경제·행정보건의복지·문화환경·농수산·건설소방·교육위원회	7~13면
5분자유발언	김봉교·이상용·이영임·황이주 의원 지방선거법 상식 / 서동민	14면
주요차리안건	건강칼럼 시민이의 원인과 치료 / 박은진 원장	15면

의정만평



산림산업발전연구회 세미나, 농산어촌지역 소득증대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산림산업발전연구회(대표 김기홍 의원)는 외부전문가 등 16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2월 3일부터 5일까지 '다목적 순환임도 조성'과 '농산어촌지역 소득증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우리 도의 산림정책 발전방안에 대하여 활발한 정책토론을 펼쳤다. 🏠

몽골 중·고생 견학, 광역지방자치와 의회제도 체험



몽골 후레대학교 부속 중·고등학교 학생 23명과 인솔교사 권오석 교장 등 일행 27명은 1월 21일 경상북도의회를 방문, 박권현 의원(청도)으로부터 광역지방자치와 의회제도 체험과 경상북도의회의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지방의회 운영 등과 시설에 대한 견학을 했다. 🏠

일본,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 강력 규탄 결의대회 개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 즉각 중단, 과거 만행 진심어린 사죄 촉구

경상북도의회는 2월 20일 도의회 전정에서 일본의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규탄 결의대회에는 송필각 도의회 의장과 한혜련 부의장, 장경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 등 도의원을 비롯해 안용복재단 사무처장,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윤한우 경북지부장과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장경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이 그동안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과 역사왜곡, "다케시마의 날 행사" 배경에 대하여 주요 경과보고를 한 후 송필각 도의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윤한우 경북지부장이 구호 제창과 만세 삼창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규탄성명서에서 일본정부는 '다케시마의 날'을 '시마네현 조례'로 제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하고 있고, 중·고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 등 역사왜곡과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을 계속 자행하고 있어 300만 도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은 또다시 깊은 실망과 터져 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밝히고, 일본은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과 '다케시마의 날' 지정을 철회하고 관련 행사를 즉각 취소하라고 규탄했다. 또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日, 중·고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독도 영유권 명기방침 규탄 성명서

경북도의회는 1월 29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고교 교과서 제작지침인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명기하기로 결정하고, 전국의 교육위원회 등에 조치사

항을 통지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 및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교과서 제작지침 왜곡은 아직도 제국주의적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며, 청소년들에게 거짓된 역사교육과 주입으로 잘못된 과거사와 한일 갈등관계를 대불림시키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질책했다. ☞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일본 독도침탈 야욕 분쇄 독도수호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장경식)는 2월 6일 2014년도 위원회 소관 독도 관련 당면 현안사항 등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위위원들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독도에는 현재 실거주자가 김성도 씨 가구 뿐인데 제대로 된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는 최소 3가구 이상이 거주하면서 생업활동을 해야 한다며 독도의 실거주자 증대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장경식 위원장(포항)은 최근 독도영유권 주장을 위한 일본 아베 정부의 중·고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독도는 일본 땅' 명기방침 공식발표에 대응하여 도의회는 지난 1월 29일 규탄성명을 긴급 발표하였다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독도 침탈과 영유권을 더욱 노골화하는 일본의 야욕을 분쇄하기 위하여 앞으로 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바탕으로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독도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했다. ☞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선진국 진입위해 지역발전 우선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제 267회 임시회를 맞아 2월 17일 회의를 개최, 경북도 정책기획관으로부터 금년도 지방분권 관련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특위위원들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금년은 박근혜 정부 2년차이며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해"임을 강조하면서 얼마 전 보도된 바와 같이 "지금 정부는 무분별한 공공사업 추진, 과시적 선심성 행사 등 방만한 지자체 재정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는 지방현실을 너무나 모르고 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나기보 위원장(김천)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은 지방발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진합태산(塵合泰山)』 티끌모아 태산이 된다는 고사성어처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힘을 합쳐 지방분권이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민생안정·서민경제활성화 간담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이주)는 2월 17일 민생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 간부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은 불가안정, 에너지 소외 계층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현안 사항을 설명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의회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황이주 위원장(울진)은 서민가계를 위협하는 불가를 잡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현장에 밀착하여 소통함으로써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과 지원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용없는 성장은 결코 서민들의 경제여건을 개선시키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현재 경상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유치」 등의 정책들이 서민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청소년문제 치유 위한 상호업무 협약 체결

경북 7개 기관·단체 손잡고 청소년 문제 해결 앞장

경상북도의회는 2월 27일 오후 경상북도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청소년관련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도교육청·경북지방경찰청·남부지방산림청·뇌교육협회·청소년멘탈헬스인성협회 등 7개 기관·단체가 함께 모여, 학교폭력·소년범죄·자살·무당기 범죄 등 우리 사회에 여러가지 형태로 만연한 청소년 문제 치유를 위한 뇌교육·인성교육을 적극 시행하기로 상호업무협약을 맺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도단위 모든 기관이 참여한 청소년 인성교육 협업 체계이며, 경북경찰이 우리 사회에 여러가지 형태로 만연한 청소년 문제 치유를 '뇌교육·인성교육'을 통한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최근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각층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각종 무당기 범죄와 성폭·가정형편을 비관한 청소년 자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청소년들이 충동·격분·스트레스 등 감정조절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회적 일탈과 함께 비행 등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해 줄 자

력이 부족한 것을 원인으로 경찰은 꼽고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그간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온 경찰청, 도청, 도의회, 교육청, 산림청 등과 뇌교

육 전문 단체인 '뇌교육협회', '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는 서로 긴밀히 협업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는 긴밀한 이해와 협업을 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협약에 참여한 기관·단체를 넘어 지역공동체와 전구에 만연한 청소년문제 해결의 모범적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결의했다. 🍀



일본 '기슈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 관계자 도의회 방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추모터 경북도 기부 의사 밝혀



일제강점기에 일본 기슈광산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희생된 한국인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자 결성한 일본내 '기슈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 관계자(사토쇼진, 김정미씨)가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경북도의회 등을 방문했다.

일본 기슈광산은 총알을 만들기 위해 구리를 캐내던 광산으로 이시하라산업이 1938년 ~ 1978년까지 운영했고, 일제강점기 때 한국인 1,300여 명이 이곳으로 끌려가 혹독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기슈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은 1997년 2월 결성되어 일본의 역사학자와

시민·재일교포 등 250명으로 이뤄졌으며, 이 단체는 2008년 구마노시와 이시하라산업에 추모비 건립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부지를 직접 사들여 2010년 3월 추모비를 세우고 추모 공간을 만든 바 있다.

한편, 2월 24일 경북도의회 방문에 앞서 '기슈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의 일원으로 방한 한 일본인 사토쇼진(역사학자) 씨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명시된 고지도(古地圖)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문제연구소에 기증했다.

경북도의회에서는 2월 25일 의장실 접견실에서 이들 모임 관계자와 도의원(김창숙, 이영식, 나현아, 홍진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기슈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 관계자는 강제징용 희생자 추모터를 경북도에 기부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

'대한민국 위민의정', '우수의정', '대한민국 대표의정' 대상 수상

지방의회 우수의정 활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노력에 기여



박병훈 의원



장세현 의원



황이주 의원



장경식 의원



홍진규 의원



이영식 의원

제2회 대한민국 위민의정 대상

박병훈(경주) 의원, 장세현(포항) 의원, 황이주(울진) 의원은 1월 23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위민의정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 시·도의회회장 협의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위민의정 대상'은 지방의회의 우수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소개해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협

력 증진 등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대한민국 위민의정 대상'은 매 4년마다 우수의정활동 사례를 공모하여 시상하고 있다.

제1회 우수의정 대상

장경식(포항) 의원, 홍진규(군위) 의원은 2월 13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열린 '제1회 우수의정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 시·도의회회장협의회가 주최하는 '우수의정 대상'은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광역의회 의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상으로서 올해 처음 시행되었다.

전국 16개 시·도의회회장으로부터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들을 추천받아 선정되며 매 4년마다 시상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의정 대상

이영식(안동) 의원은 2월 14일 (사)대한기자협회 중앙회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대표의정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대표의정 대상'은 (사)대한기자협회 주최하고 (사)대한기자협회 광역협의회 추천을 받아 중앙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전국 광역시·도의회를 대상으로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에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의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상이다. 🍀

특별위원장 인터뷰 시리즈

집중 인터뷰

협력과 배려로 다함께 잘 사는 경북· 대구 만들기



김병기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장(청송군)

“최근 국내·외적인 경제 환경이 악화되어가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실정이며 이와 함께 남부권 신공항 유치,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성공 개최 등 구책사업 유치 및 공동 추진, 공동협력 사업 발굴, 서민경제 활성화 등 주요 현안사항과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향 모색에 대한 대구광역시와의 상호 협력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재작년 10월부터 제9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기 도의원(청송)은 현 시점의 경북·대구가 협력해야만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이를 위해 작년 초 집행부와와의 간담회를 통해 협력 과제 등에 대한 토론을 하였으며 대구광역시의회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가지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

업무협약 내용은 첫째,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 둘째, 구책사업 추진 및 서민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대응 및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향 모색, 셋째, 지역현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상호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이다.

두 차례의 간담회에서 양 특위 위원 대부분이 참석하여 두 지역의 상생발전 및 협력방안, 경북·대구 중점추진 정책 협력과제 등에 대한 많은 의견 교환을 나누었으며 특히 ‘강정고령보 우측교 차량통행 문제’와 ‘경북도·대구시 공무원 공동교육 실시’건은 정식과제로 채택하여 공동협력 추진하기로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김병기 위원장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서로의 협력과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구책사업 유치 등에 대하여서도 정치권에 공동 건의하는 등 경북·대구의 발전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위원장은 제9대 전반기에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경북교육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제9대 후반기에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써 ‘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조례안’,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련 조례를 발의하였고, 제26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는 ‘무상보육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 제263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는 ‘노후화된 저수지 개선 대책 및 가정폭력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지방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산다



나기보 지방분권특별위원장(김천시 1)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권한 없는 자치, 돈없는 자치가 계속 되어 중앙정부에 의지하고 눈치만 보는 현실 속에 지방자치는 요원한 것이 되었으나 이제 세계가 이웃집처럼 되어 가는 이때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자체의 경쟁력이 우선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전체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나기보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김천시)의 견해를 밝혔다.

그 동안 지방분권추진특위는 지자체 혼자만의 힘으로는 분권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재작년 11월 부산·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와 함께 실질적인 지방분권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개발과 대 정부·정치권 건의 활동 등에 상호 긴밀히 협력 연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집행부와 두 차례의 업무보고와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토론하고 논의한 바 있다.

나기보 위원장은 “급변하는 박근혜 정부 2년차이며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해라며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중되고 선도되어야만 21세기 선진국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개성있

는 발전과 자치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제9대 의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방조직과 지방재정에 대한 자율권 확보 등 지방분권이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전국의 자치단체와 연합하여 대정부 건의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9대 도의회에서도 전·후반기 농수산위원회와 후반기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에 충실히 하고, 집행부에 대해 지적과 적발위주 보다는 바람직한 입법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FTA 개방화, 고령화 시대 현장에서 농어업인들의 아픔을 함께 하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꾸준히 연구하고 경쟁력 있는 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258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김천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와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지원대책”, “태풍 산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김천지역의 항구적 피해 예방을 위한 아치고 건설 등 도정현안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동시에 해법을 제시하여 집행부로부터 의미 있는 답변을 유도했다. 🍎

고등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신도청 시대를 대비하자

정형진 안동대학교 총장



신도청 시대 발전의 핵심은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활성화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경북도청의 안동지역 이전은 여러 측면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가져다 줄 블루 오션으로 꼽히고 있다. 이를 계기로 건설될 인구 10만의 신도시는 교육, 문화, 경제 등 경북 북부지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선도적 역할 배경에는 그 핵심이 고등교육의 활성화에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전망은 우리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황을 진단해 보면 향후 10년 이내에 전국 대학에 몰아질 폭풍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2013년에는 고교 졸업자수가 대학입학 정원(13년 기준 559,036명)보다 72,799명 초과하나 우리나라 전체 학령인구 감소로 2018년도부터 고교졸업자 수가 대학입학정원에 9,146명 미달하고 2024년 고교졸업자 수는 2013년 대비 241,571명이 감소한 390,264명이 될 전망이다.

그런데 현재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약 70% 수준으로서 이를 감안하면 100% 신입생 충원

을 전제로 할 때 2024년에는 전체 대학에 입학하는 총인원은 273,184명이 되어 285,852명이 미충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현재의 안동대학교 입학정원인 1,588명 규모의 대학 180개 정도가 입학인원이 전혀 없게 된다.

현재의 대학입학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5년 이후 대학 입학정원의 51.1% 이상이 미충원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안동지역 고등학교 학생 수는 2005년 17,173명에서 2013년 6,300명으로 63.3% 감소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미달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은 끊임없는 구조개혁과 입학정원 감축을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근대학교와의 연합 혹은 통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상북도에는 2개의 국립대학과 1개의 도립대학이 존재하고 있다. 신도청 시대의 고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안동대와 경북도립대학과의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도청 신도시에 캠퍼스를 재배치하고 통합 신 캠퍼스를 조성하여 여기

에 관련 특수대학원 및 단과대학 등을 이전하여 조성하면 명품 신도시로 창조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경북도청의 안동시 이전과 함께 정주인구 10만명의 신도시가 건설 예정 되어 있어 의료 서비스 선진화가 필수적인 지역이다. 이를 위하여 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최근 서남대 의대 폐지 논란으로 전남지역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의과대학을 적극 유치하려는 노력이 있다. 목포대 및 순천대를 비롯하여 공주대, 창원대, 서울시립대, 인천대, 군산대, 한구외대 등 타시도로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현재 국내 의과대학은 총 41개교이며 총 입학정원은 3,059명으로 유지(의학전문대학원 1,687명, 의과대학 1,372명) 되고 있다. 경북지역의 의과대학은 경북대(110), 영남대(38/38), 계명대(76), 대구가톨릭대(40) 등이다. 그런데 사실 이들 4개 대학은 대구권역에 대학병원을 설치한 대학이며 경북 북부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북에는 3차 병원이 없고 종합병원이 18개 있는 반면 대구에는 3차병원이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동산의료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영남대학교 의료원 등 4개 있다. 경상북도는 외상환자 수 전국 2위, 외상진료 수요환자 수 전국 3위 지역으로 서울, 경기도에 이어 환자 분포의 6.9% 차지, 외상환자 사망률이 3.4%로 전국 4위 지역, 수도권보다 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관광지수 전국 1위, 반면 협준한 산간지역이 많고 산간지역 거주인구도 전

국 1위 지역으로 교통사고 표준화 사망률 전국 1위지역이다.

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시 안동병원을 의과대학실습 협력병원으로 먼저 활용하고 향후 신도청 소재지내의 메디컬 콤플렉스에 의과대학,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위하여 가칭 “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기획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 구성원은 물론이고 경북북부지역의 지역민, 지자체의 합심된 유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신도청 시대에 대비한 고등교육의 발전 방향은 결국 안동지역의 대학이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발전은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안동대학교의 발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인재 유출 방지와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동지역 대학의 특성화가 필요하고 또한 안동대학교를 거점 국립대학수준의 지역중심 명문대학으로 육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경북북부 지역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우수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하여 안동대학교의 의과대학 신설과 2018년 이후 입학자원의 감소가 급격히 진행됨을 감안하여 지역대학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함께 국립대학과 도립대학간의 통합으로 국내 최고수준의 명품 대학설립을 통하여 미래 신도청 시대를 활짝 열어가야 할 것이다. 신도청 시대 발전의 핵심은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활성화에 있음을 모두가 기억하고 서로의 중지를 모아 헤쳐 나가길 바란다. 🍎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지역주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주민밀착형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지방의회상 강화노력

정책연구위원회 활성화,
회기운영내실화 당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병훈)는 2월 6일 올해들어 처음 개최된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그와 관련한 의회운영방향 제시와 내실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들은 지방의원의 자치법규 입안과 정책과제 발굴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법령의 제·개정 및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조례 일제정비, 주민밀착형 의정활동 홍보강화 등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올해는 제10대 도의회가 새로이 구성되는 만큼 그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준비는 물론 2015년 첫 임시회 개최 이전에 도의회 신청사 이전의 완벽한 추진을 강조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롭게 시도하는 청소년 모의의회 시범운영 프로그램은 민주주의 학습체험으로 성숙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운영에 특히 신경을 써 줄 것을 주문했다.

박병훈 위원장은 제9대 의회는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적정집행으로 도민으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의 정례화로 소통과 화합의 의정구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보고 2014년도에는 더욱 원활하고 예측가능한 회기운영으로 차질

의회운영방향 제시, 내실있는 의정활동 지원 당부 도민이 행복한 경북 만드는데 온 역량 결집

없는 의정활동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회기동안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이 면밀하게 수립 됐는지 한 번 더 철저히 점검하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고 “이제 도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알찬 마무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앞서 개최된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는 ① 도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 관련 동향 ② 6·4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③ 권역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응 방안 ④ 도의회 신청사

이전의 체계적인 추진 ⑤ 2014 청소년 모의의회 시범운영 ⑥ 조례일제정비 계획 ⑦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추진상황 등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의회차원의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토론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발전뿐 아니라 300만 도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세밀한 검토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 및 효율적 대응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

1. 의장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
2. 2014년 주요업무보고



기획경제위원회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

2014년 소관 부서 주요업무보고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진현)는 제267회 임시회를 맞아 2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고 도 본청 소관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투자본부 등 5개 실·구과 출자·출연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2월 6일 업무보고에서 대변인실은 지방의 정보소외를 해소하고 도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복지사업들을 적극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보고하였으며, 기획조정실, 미래전략기획단은 금년 도청이전과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권역별 발전전략 및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2014년 대통령 신년구상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①비정상적



1. 2014년 주요업무보고
2. '실리리안' 판매장 견학

비정상의 정상화 경상북도가 적극 선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서민복지 실현...

관행의 정상화, ②창조경제를 통한 혁신경제, ③내수활성화에 맞춰 중앙정부 정책방향과 역점시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도입,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합리적 재정운영과 투명성 제고로 건전재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북테크노파크는 윤리경영을 위해 직무청렴계약서 체결,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비리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투명 경영 실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위원들은 “지난 해 3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 4년 연속 지방재정 균형집행 대상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성과를 낸 것에 대하여 치하하면서 박근혜정부 2년차인 금년은 본격적인 정책 추진이 예상되고 6·4 지방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인 만큼 도청이전 등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2월 7일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산업실은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서민금융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소비자, 유관기관, 도·시군 등 협력강화로 물가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첨단 융복합 미래산업 발굴·육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보고했다. 일자리투자본부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과 청년 미취업자의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및 정책 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위원들은 “민생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10년, 20년 후 경북이 먹고 살

민생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 위한 일자리 창출 노력 지방의 정보소외를 해소, 복지사업 알리는데 주력

아야 할 미래성장동력산업 정책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박진현 위원장은 새해업무보고에 덧붙여 “이제 제9대 의원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

지만 초지일관(初志一貫)의 마음으로 기획경제위원들과 함께 경상북도의 발전과 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활동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도정수행 해야 정부 정책에 발 빠른 대응전략 마련 등 차별화된 도정시책 주문

2014년 소관 부서 주요업무보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채옥주)는 2월 6일 부터 7일까지 양일간 제26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감사관실, 보건복지국,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안전행정국, 여성정책관실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첫째날, 감사관실은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중점 추진전략으로 엄정하고 효율적인 자체 감사, 비리 사전차단을 위한 예방감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 도민 중심의 감사활동 전개로 열린 감사를 구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에서는 도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 실현을 위하여 계층별·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일할 의지를 북돋우는 일자리 복지 정착, 찾아가는 현장 복지로 복지체감도 향상, 통합건강서비스 제공 및 식품안전지대 구현을 금년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둘째날, 공무원교육원은 금년도 교육훈련 목표로 미래를 바꾸는 교육, 도민이 행복한 세상으로 정하고, 창조적 핵심인재 양성, 맞춤형 전문 교육 강화, 시대 흐름을 반영한 특화교육, 자기 주도적 사이버교육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경북도립대학교에서는 신도청 중심 우수전문인력 양성대학을 목표로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선정 추진과 신입생 100% 충원으로 안정적인 학사운영 도모, 취업률 및 공시지표의 체계적 관리로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 실현에 최선 행정수요 능동적 대처 민생안정 최우선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중점 추진시책으로 새마을 해외 시범마을 확대, 도내 낙후된 마을의 주거환경개선 등 경북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개도 700주년 신도청시대 준비, 제6회 동시지방선거의 빈틈없는 법정선거사무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끝으로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금년도 중점 과제로 여성 취·창업 지원으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공보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보고를 받은 위원들은 최근 도청이전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태 등과 관련하여 사전 예방적 감사의 필요성과 감사자의 역량을 키울 것을 주문하였고, 아울러 노인들을 위한 여가복지활동 지원사업 규모가 너무 작고 프로그램도 단순하다고 지적하고 시·군 경로당, 복지회관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요구했다.

또한, 도립대학의 취업률이 타 대학에 비해서 낮으므로 특화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신도청 이전지에 신도시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주택구입 용자를 위한 주거안정기금 확대 조성 등 이주대책을 마련할 것과 신청사 이전 시 사무실 장비 등의 재활용을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상임위 위원들은 도내 지역별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지역구 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도정 홍보차원에서도 지역구 의원을 통하여 사전 설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채옥주 위원장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도정수행을 당부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발 빠른 대응전략 마련 등 차별화된 도정 시책 발목을 요구했다. 🏠



1. 김천의료원 현지확인

2·3. 2014년 주요업무보고



문화환경위원회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활동



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철저한 고증작업이 필요하며, 유교·신라·가야 3대 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과 백두대간 그린마인비즈니스 구축 사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2015 세계물포럼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차질없는 준비를 주문하고, 낙동강과 백두대간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도민 소득 증대 등 지역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에도 행정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위원회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만큼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에 임해 줄 것을 강조하고, 특히 철저한 수질검사와 식품위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규사업은 철저한 준비를, 계속사업은 내실있게, 당면현안은 조속히 처리·추진하도록 당부

2014년 소관 부서 주요업무보고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전찬걸)는 2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제26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2014년도 소관 부서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도민들의 문화향유 증대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먼저 2월 6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문화관광체육국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성공적으로 끝난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문화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계층·지역·세대간 문화격차 확대가 예상된다며 문화사각지대 해소, 관광인프라 확충, 해양실크로드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경북관광공사 사장 공석과 관련, 관광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만큼 조속히 책임자를 선임할 것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국관광객의 도내 유치에 위해 문화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특히, 각종 고백과 민박 등을 이용한 기존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경북만의 특색있는 콘텐츠 발굴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도내 각종 문화재 관리 실태를 재점검하여 시대변화에 맞게 유연하고 탄력적인 보존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각종 문화·체육·복지시설의 난립양상을 지적하고 도민들이 문화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업무처리해 줄 것과 2015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준비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도 당부했다.

이어 2월 7일 열린 환경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 업무보고에서는 계속되는 유해화학물질 사고와 미세먼지 증가, 휘발성 유해물질 대기오염 등에 대한 주민 불안감 팽배 등을 지적하며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활동을 촉구하며,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을 위한 인력·장비 등 기

문화향유 증대, 쾌적한 환경조성 통해 삶의 질 향상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 통해 민생현안 해결

반구축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팔공산도립공원의 구립공원 지정 추진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와도 폭넓은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과 금년 전구 최초로 실시하는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격려하고 구비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문화환경위원회 전찬걸 위원장(울진)은 “올해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민생현안을 살피는 한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면서 알차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 문전성시프로젝트 현장방문 (문화 전통시장)
2·3. 2014년 주요업무보고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활동

첨단과학과 농어업 융복합화로 6차산업 촉진, 철저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등 주문

2014년 소관부서 주요업무보고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상진)는 2월 7일 제 267회 임시회상임위 회의를 열어 농수산위원회 소관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농수산 위원들은 청년농업인 양성·확대 및 농외소득 증대 방안 마련과 각종 농어업 보조금의 부당사용 방지대책, 농업기술원 자체 신제품 생산·확대 보급, 기계화도로 확·포장, 대구 확장리 등 농업기반사업 전액 구비지원 건의 촉구와 딸기 시설하우스의 무가온 비닐하우스 시설 대체 활용을 제안하였으며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와 동해안 연안침식 방지 대책, 도내 기업들의 포항 영일만항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 활용도 제고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교과서 역사왜곡 행위를 규탄하고, 도내 초·중·고교의 독도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청과의 협조체계 강화를 주문하였으며,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서는 독도대첩 기념행사 등 민

경쟁력있는 미래농업 육성 최선 다할 것 경북 농어업 활로모색과 재도약 발판

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함께 역사적·지리학적 근거 등 도민들의 이론적 무장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독도에 대한 이해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상진 농수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농어촌 고령화, FTA 시장개방 가속화, 자연재해 빈발, AI 전구적 확산, 일본의 독도 도발 등 최근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북은 다양한 성장 잠재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면서 “집행부 전 직원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어업을 첨단과학과 농어업의 융·복합화로 6차산업을 촉진하여 돈벌이가 되는 농어촌을 만들도록 주문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현장점검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AI가 전구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어 1월 27일 구미 해평읍지 및 김천IC AI방역현장을 방문하여 감염원으로 지목된 가창오리떼 등 철새의 이동상황 및 방역대책을 확인·점검하면서 AI가 경북도내에 유입되어 축산농가 등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을 촉구하고 현장근무자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대설 피해상황 및 대책 보고

지난 2월 7일부터 10일까지 도내 포항, 봉화, 울진 등 8개시군에서 발생한 대설피해로 인하여 2월 17일에는 농수산위원회 사무실에서 대설 피해상황 및 대책 보고를 받았다.

위원들은 이번 폭설피해로 깊은 시름과 실의에 빠져 있는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조속한 피해 조사와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온 힘을 다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



1. 대설 피해상황 및 대책 보고
2. 2014년 주요업무보고
3. AI 방역대책 현장점검

건설소방위원회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활동



1. 2014년 건설소방위원회, 도민행복실현을 위한 의정활동 다짐
2. 2014년 주요업무보고
3. 강정고령보 현지확인

하고 균형있는 SOC망 구축, 남부권 신공항 건설, 수요중심 도시개발 및 특화산업 조성 등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맞춤형 지역개발, 도민이 행복한 경북실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관급자제 구매제도 개선, 무질서한 간판문화 개선, 층간소음 분쟁 없는 문화조성, 불투명한 아파트 관리비 개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의 비정상화의 정상화 추진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건설분야가 더욱더 투명해지도록 지속적인 과제 발굴과 노력을 촉구했다.

이어 건축위원회 운영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위원수를 40명에서 60명 이하로 개정해 인력 풀을 확대운영하고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도 명문화 하는 등을 추가하기 위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희원 의원 대표발의)을 원안가결하고, 또한 경상북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첫째, 경상북도의 정체성을 최대한 반영, 둘째,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실행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 셋째,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광역건

국민 행복시대와 연계, 도시재생 및 생활형 SOC 확충 비정상화의 건설분야 제도 및 사업현장에 정상화 발벗고 나서..

맞춤형 지역개발, 도민이 행복한 경북실현에 최선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명품신도시 조성 당부

2014년 소관 부서 주요업무보고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욱)는 2월 6일 제 26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집행부인 도청이전추진본부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 마련 등 조례안 1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청이전추진본부 업무보고에서는 경북에 소재한 유관기관단체들은 그 특성과 도내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해 신중한 이전검토와 또 모든 기관단체가 신도시에 집중되면 오히려 역 균형개발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또한, 상하수도·학교·주거시설 등 정주여건에 필요한 세세한 부분들의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고 초기 생활권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U-City 사업계획 수립, U-City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홍진규 의원 대표발의)을 원안 가결했다.

2월 7일,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는 건설도시방재구 및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1건을 원안 가결하고 기타안 1건을 채택했다.

건설도시방재구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장두욱 위원장은 급년에 전년대비 15.5% 증가한 4조 8,600억원의 SOC구비에신을 확보한 집행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급년에도 더 편리

축기본계획안을 수립토록 하는 등 3가지 위원회의견을 제시하고 채택했다.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소방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선, 소방감식 및 소방수사권 확보, 실질적인 의용소방대 활동 제고, 유해화학물질 등 특수사고 대응 역량 강화, 선도적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건설소방위원회는 2014년 신도시 시대를 앞두고 도민 삶의 질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도 했다. 🏠



교육위원회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활동

금년에는 창의·인성을 바탕으로 한 인재양성 당부 교육자치 수호 위해 교육위원제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능을 키워주고 맞춤형 학력지도를 강화하여 기초학력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보고를 받은 위원들은 “그동안 교육당구의 많은 예산과 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학교 교육의 만족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과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독서교육 담당자 연수를 가급적 상반기 중 실시하여 독서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요구하였으며, 최근 학교장의 보조금 횡령으로 폐쇄된 학교의 학생이 원적교 복귀에 따른 문제점 발생 등 규정과 현장행정의 괴리를 지적하기도 했다.

교장공모제는 시행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이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최근 일본정부의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구영토로 표기하도록 한 일본정부를 규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집행부와 상임위원장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2015년 7월 준공예정인 경상북도교육청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애로점과 진척상황에 관심을 보이며 “교육청 이전은 단순히 사무실을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복지의 산실을 만든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훌륭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무공간이나 편의시설 등을 세심히 살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개최된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는 6월 30일로 종료되는 교육의원제도의 존속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의원들은 긴급발언을 통해 “이 제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해온 제도로서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반증이라 주장하며, 교육자치수호 차원에서 교육의원제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수용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우리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하였으며 집행부에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경북교육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높일 수 있는 시책과 노력 당부 교육청 이전, 새로운 교육복지 산실 만든다는 사명감 가져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2월 7일 제26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꿈과 재능을 키워 행복을 주는 명품경북교육을 실현하고자 6대 주요과제 35개 세부실천 계획을 제시했다.

6대 주요과제로는 ①바른 삶을 가꾸는 체험 활동 ②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 ③창의·인성 교육과정 운영 ④경쟁력을 키우는 인재 교육 ⑤희망을 주는 어울림 교육 ⑥현장 중심의 지원 행정으로 설정하고 주요과제별 세부 실천계획을 착실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상북도교육청이 밝힌 업무보고중 핵심내용은 ‘창의와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있는 인재교육’이었다. 경북의 4대정신인 화랑·선비·호국·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하여 꿈과 재



1·2. 2014년 주요업무보고
3. 인동 꿈터유치원 현지확인

5분 자유발언

대구 취수원 이전 사전협의 강력 촉구

김봉교 의원(구미시6)

“최근 언론보도와 같이 구토교통부는 취수원 이전 관련 용역예산 구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 기초조사에 입찰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작 경상북도나 구미시에 아무런 협의도 없는 상황에서 대구시장 출마 예상자들은 대구 취수원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사업비와 완공시기까지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히며 이러한 정부와 대구시의 일방적 추진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지역간 갈등만 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식수 부족 문제와 함께 정부 감사자료, 유량, 민원 등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한 후에 취수원 이전문제가 판단되어야 하고, 경상북도, 구미시, 지역주민과 반드시 사전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도립의료원 특성화 및 차별화 방안 마련 촉구

이상용 의원(영양군1)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상용(영양)의원은 3개 도립의료원에 대한 특성화된 경쟁력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의료원이 위치한 포항, 안동의 경우 민간 의료기관과 인력이 충분한 의료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김천의 경우 인접한 구미지역의 풍부한 의료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음을 지적하고, 도립의료원의 특성화된 병원 또는 차별화 할 수 있는 진료과목 개설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이상용 의원은 경북의 고령화 정도를 감안하여 치매전문 치료 또는 재활 등을 전담하는 병원 또는 말기 암환자 등을 위한 호스피스 병동 운영 등 꼭 필요함에도 민간의료기관 투자가 부족한 분야로의 특성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수립·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경북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정책수립 촉구

이경임 의원(비례대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경임(비례대표)의원은 경북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경임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여 경북도의 경우 8만 7천명의 여성이 경력에 단절된 상태에 있으며, 여성 취업자의 학력별 구성비에서도 중졸 이하 39.4%, 고졸 32.7%, 대졸 이상 27.9%로 나타나, 고학력 여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도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단축근무제,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등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확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시행하도록 촉구했다.



울진 원자력 마이스터 고등학교 부실시공 심각

황이주 의원(울진군2)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울진)의원은 “경북교육청이 울진 평해공고를 원자력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환하여 총 98억 여원의 예산을 들여 4층 규모의 생활관을 짓고 실습동을 리모델링 하였으나 부실 발주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싸구려 학교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생활관 옥상의 채광창에 심한 균열과 목재와 콘크리트

구조물 상이의 이격이 심하고, 현관에 설치된 대리석이 변색되어 있는 등의 부실시공 사실을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러한 부실 시공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학교장을 비롯한 도 교육청 현장담당자, 감리단을 손을 놓고 있다며 전문가의 정밀진단 및 조사를 촉구했다.



선거운동기간 전 유권자의 선거운동

서동민 (경북선관위 지도과)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법 §59·§82의4·§82의5)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단체
- 기 간 : 언제든지(선거일을 제외하며, 전송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음)
- 방 법 :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음.
 - ⇒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을 이용하여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않음.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법 §59)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단체
- 기 간 : 언제든지(선거일을 제외)
- 방 법 :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법 §59·§82의4·§82의5)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단체
- 기 간 : 언제든지(선거일을 제외하며, 전송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음)
- 방 법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정보 전송
 - ⇒ 선거운동정보 작성형태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문자뿐만 아니라 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 전자우편으로 전송가능한 형태라면 무방

관·련·사·례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후보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를 표현한 UCC를 게시(광고 제외)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예비후보지홍보물,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공보를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를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 포털 또는 일반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하여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홈페이지의 URL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에 후보자를 사칭하는 등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이외의 자가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문자가 아닌 이미지 파일이나 정당 로고를 전송하는 행위



제267회 임시회

주요 처리안건 소개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경상북도지사 2014. 1. 27
- 제안이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및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업무량이 확대된 세무인력을 보강하고 실제 주민 생활공간에 기반한 지역발전정책 추진 등을 위한 행복생활권 추진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재정사업의 효율성·합리성 제고를 위한 재정사업자율평가 및 비정상의 정상화를 새로운 구민운동으로 승화·발전시키기 위한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이다.

▶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경상북도지사 2014. 1. 27
- 제안이유: 중소기업기본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과 중학교의 의무교육 시행으로 중학생을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변경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이다.

▶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

- 발의자: 홍진규 의원 외 7인 2014. 1. 27
- 제안이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김희원 의원 외 9인 2014. 1. 27
- 제안이유: 「건축법」(13. 3. 23) 및 같은 법 시행령(13. 11. 20) 개정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근거법령 조항의 불일치를 정비하고자 함이다.

▶ 경상북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제출자: 경상북도지사 2014. 1. 27
- 제안이유: 건축기본법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있어 이에 경상북도의 우수한 건축·도시문화자산을 보존·활용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건축·도시 관련 정책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이다.

▶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경상북도지사 2014. 1. 27
- 제안이유: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시설에 대한 정의와 2008년 이후 동결된 청소년시설(경상북도 청소년수련센터) 사용료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인상하고, 지방의회 의원 및 감사관의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경상북도 청소년육성재단

의 임원 선임(이사, 감사)에서 제외하며,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함이다.

▶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경상북도지사 2014. 2. 14
- 개정이유: 2014. 2. 13 공직선거법의 개정·시행으로 도의원선거구 조정 및 지역여건의 변화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시·군의원선거구에 대하여 경상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시군의원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도에 제출하였으며,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6. 4시행 제6회 지방선거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다.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칼럼

시린이의 원인과 치료

이가 시린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치주질환은 많이 진행될 때까지 이나 잇몸이 아프다는 증상이 없어 쉽게 지나칠 수 있으나 늦어지면 치료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치주질환이 진단되면 스케일링과 잇몸치료를 반드시 해야 하며 양치질 방법의 개선도 중요하다. 항상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될 때는 칫솔뿐만 아니라 치간칫솔, 치실 등의 보조도구 사용법도 배워보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흔한 원인은 치경부 마모로 인한 시린

증상이다. 치경부는 치아와 잇몸 경계부위를 말하는데 그 부위가 깎인 듯 파여 있다고 보이는 것이 치경부 마모이다.

치경부 마모는 너무 강하게 옆으로 칫솔질을 하는 경우나 질긴 음식을 좋아하는 식습관, 이갈이, 교합문제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잇몸이 퇴축되어 치아와 잇몸 경계부위가 노출되고 이곳이 마모되면 내부의 상아질이 노출되게 된다. 얇은 법랑질이 마모되고 노출된 상아질은 치수와 연결된 가는 관에 의해 외부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증상이 심할 경우 마모된 부위를 치아 색과 유사한 재료로 매워주는 레진치료나 노출된 관을 막아주는 코팅치료를 해주어야 한다. 물론 마모를 유발하는 양치질 습관이나 식습관 개선도 당연히 필요하다.

마모가 심할 경우 부드러운 칫솔과 마모제가 적은 치약으로 교체하고 칫솔질은 잇몸을 마사지 하듯 위아래로 부드럽게 해주어야 한다. 음식도 너무 차거나 질기고 딱딱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도 치아의 씹는 면에 마모가 심하거나 교합이 치아에 무리한 힘을 가할 때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치아가 시린다는 것은 치아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이다. 하지만 치아가 시린 원인은 이렇듯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경우 빠른 검진을 통해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수성연합치과 /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 053-742-2882



박은진 원장
(수성연합치과)

누구나 한번쯤 찬물을 마시거나 양치할 때 이가 시린다고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분들의 주된 증상이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느껴보는 증상이기도 하다.

대부분은 이가 썩은 것으로 생각하고 치과에 방문하지만 시린이의 원

인은 충치, 치아파절, 치아마모, 잇몸질환, 교합이상 등 너무나 다양하다.

치아가 썩어 충치가 되고 신경까지 근접하거나 손상되면 시린 증상이 나타난다. 충치가 있는 경우는 썩은 부위를 제거하고 매워주거나 신경치료를 해주게 된다.

또한 치아가 파절되거나 금이 가도 치아 내부의 치수가 자극을 받아 시린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파절은 사고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얼음과 같이 단단한 음식을 깨어먹는 습관도 치아에 금이 가게 하는 요인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린이의 가장 많은 원인은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치주질환이다. 치주질환은 흔히 풍치라고 알고 있는 질환으로 잇몸주위에 생긴 치석과 세균으로 인해 뿌리 주변조직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잇몸 질환이 생기면 치아를 둘러싼 조직이 녹아 내려가고 깊은 치주낭이 형성된다. 이러한 치주낭에 찬물이 스며들면서 노출된 뿌리에서 자극을 받아 시린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한 이래 대한민국 영토이며,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일본 에도막부로부터 서계를 받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울도군(울릉군) 소속이 되었고
1946년 연합국 최고 사령부 지령과 1951년
일본의 법령에서도 한국 영토로 인정.....

그곳을 알고 싶다 **DOKDO**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져 있으며,
동도와 서도 2개의 큰 섬과 89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동도는 유인등대가 설치... 서도에는 주민숙소가 있다.

그곳에 가고 싶다 **DOKDO**



※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독도(www.dokdo.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